



더 스토리

2025W액션나눔캠페인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말할 수 있는 힘

현장 속으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 부룬디 소녀들,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갈래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강홍구 소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비산치과 전민용 원장

따스한 마음에 희망을

2025년 상반기호
NO.157



여성재단에 부족한 ‘딱 하나’

강혜란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前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요즘 “그나마 3년이라 참 다행이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곤 한다. 왜 아니겠는가. ‘여성이족부 폐지’를 선언하며 성평등과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행을 가져온 정부다. 그 암울했던 정부가 시작된 다음해, 나는 재단의 배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감사였다. 재단 활동에 2년여 참여해보니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 우선 한부모, 이주여성, 탈성매매여성,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청소년, 여성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지원한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활동가들의 건강과 역량 강화, 대학원과정을 지원한다. 탄핵, 딥페이크 성범죄 공론화 등 특정 이슈가 급부상할 때에는 긴급지원도 진행한다.

재단은 여성운동 그리고 페미니즘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땐 나아가는 대로 어려울 땐 어려운 대로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힘을 보태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페미니즘 리부트 초기에는 신생조직들이 법적인 등록 여부나 활동 햇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정책을 변경하였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해외재단 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여성단체들의 고단한 살림을 챙겼다. 새로운 이슈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아젠다를 숙성시킬 수 있는 3년 연속 사업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성평등한 돌봄 사회 조성’을 젠더폭력예방사업처럼 별도의 지원 항목으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만나 보면 한결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솔직히 이 기금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재단”, “산소 호흡기

같은 지원”, “수능 합격 때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 등등. 그러한 지원을 열 배 아니 백 배 천 배로 되돌려주는 단체들의 활동도 감동의 연속이다. 재단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한부모단체의 회원의 자녀가 성년을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임금체불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을 돕는 이주여성 리더들의 성장기를 듣기도 한다. 고용노동부 상담에 실망해 국고지원이 중단된 평등의 전화를 물어 물어 찾아온 내담자들의 이야기도 전해 들을 수도 있었다.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재단에는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기금의 규모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지원 중인 사업의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지금은 해외 재단을 통해 조성된 기금규모가 늘어난 상황이지만, OECD 회원국이자 부자 나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외형상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기금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백래시와 저항은 더 많은 성평등 기금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성평등 추진체계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성재단의 필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행히도 부족한 것은 딱 하나이다. 개인은 기부 횟수와 금액을 늘리고,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동참하며, 재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과 해외 재단 발굴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

Contents

여는 글	여성재단에 부족한 ‘딱 하나’ 강혜란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前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02
더 스토리	2025W액션나눔캠페인 : 당연한 일상을 위해 함께 나눈 이야기	04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 말할 수 있는 힘	08
현장 속으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다	12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16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 부룬디 소녀들,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갈래요	19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특별한 인연,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강홍구 소장 : 작은 참여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22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비산치과 전민용 원장 : 취약계층 여성가장과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25
재단소식	재단활동 2025년 1-6월	28
	기부자 명단 2025년 1-6월	32
	수입과 지출 2025년 1-6월	34

♥ 후원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 인스타그램 @womenfund
▶ 유튜브 www.youtube.com/kwomenfund
🎧 해피빈 happylog.naver.com/hlog/womenfund/home

딸들에게 희망을 2025년 상반기호 NO.157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디자인 그래픽오션

2025W액션나눔캠페인

당연한 일상을 위해 함께 나눈 이야기

더 스토리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6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5W액션 나눔캠페인>은 『당연한 평등, 당연하지 않은 평등』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직 '당연하지 않은' 평등의 현실을 돌아보고,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한 평등,
아직은 당연하지 않기에

불법 촬영, 온라인 스토킹, 고용차별, 임금격차 등 지금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은 많은 이들의 일상에 당연한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캠페인의 메시지와 현장의 다양한 사례 이야기를 온라인 특별 페이지와 SNS, 특집 뉴스레터 등을 통해 대중과 공유하고 다시금 함께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액션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평등이 모두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는 사회로의 걸음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성평등 활동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25년간 여성 인권, 차별, 폭력,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공익단체들의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캠페인 역시 시민과 기업의 참여로 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전국의 다양한 여성공익단체를 지원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성평등기금을 통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926개 여성공익단체의 사업을 지원했고, 사업의 참여자가 98만 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성평등 사회조성사업도 현재 5개 분야에서 11개 단체의 성평등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주요한 여성이슈 해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지원	·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과 기록 · 2025 FDSC 예비-사회초년생 디자이너 멘토링 ·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노동자의 대응 ·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한국여성운동 역사 잇기 프로젝트 <잇:다 From 1995 to 2025>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사업 지원	· 포항 대흥동 허(Her)스토리 ·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성·인종착취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 기초조사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지원	· 돌봄 노동에 잠식 당한 나의 인생 구하기 <페어 플레이 프로젝트> · 환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
신생여성단체&차세대 여성사업 지원	·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 이슈에 따른 수시긴급 지원	· 윤석열 파면한 페미니스트 대행진: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로! · '1대 대선, 여성 유권자가 말한다' 정책 토론회



단체의 생생한 사업 현장 이야기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기부자님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굿즈로 만난 두 명의 여성

캠페인 굿즈에는
이번 캠페인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담았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초대 이사장인 '박영숙'선생님은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싶다”라는 말씀
처럼 평생을 사회운동가로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환경운동에 앞장서며, 성평등과 함께 생명, 평화,
살림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여성의 몸과 고통, 정체성을
솔직하게 담아낸 혁신적인 예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가부장제에 도전하며 여성 주체성과 자기표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리다 칼로와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에서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양한 여성들이
삶과 목소리를 당당히 지켜내기를 바라며, 함께 응원해주
시는 분들과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봉태규,
손수현 홍보대사님들이 온라인 채널에서 굿즈를 공유하며
응원해주셨던 스토리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SNS 채널에서 진행된
캠페인 응원 이벤트-굿즈 인물 맞추기 퀴즈에도 여러분들
이 참여해 굿즈의 인물과, 캠페인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25W액션나눔캠페인>에 참여해주신 기부자들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이 해소되고,
폭력 없이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라며, 여성들의 연대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는 기부 참여 메시지
를 전해주셨습니다.

“
안전하고 폭력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평등기금 신규 기부자, 장*표님

“
사회의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과
지역에서 애쓰고 있는 여성공익단체들을 위해
작은 기부지만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성평등기금 신규 기부자, 신*진님

#기부자와 기업 파트너의 응원

한국여성재단의 오랜 파트너 기업인 유한킴벌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직원참여
캠페인 '딸들에게 희망을'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캠페인
을 통해 모아진 유한킴벌리 기금은 2026년 성평등
사회조성사업의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유한킴벌리 사원들 외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기부하며 캠페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의 약속

<2025W액션나눔캠페인>에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중 모금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성평등기금 모금은 연중 계속 이어집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차별
과 폭력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속가능
한 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기부 참여 방법

- 나눔계좌
농협 1279-01-000251
- 온라인 참여



글 - 나눔기획팀 박정아, 복금희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말할 수 있는 힘

더 스토리



“폭력은 낯선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2024년 한국여성의전화의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10명 중 3명은 평생 최소 1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뉴스에서, 일상에서, SNS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폭력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는 충분할까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식 창구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그간 SOS 캠페인(Save Our Safety)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폭력 예방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년간 폭력 방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젠더폭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 개념을 유형화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알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 등에서 GBV(Gender Based Violence) 대응 사업을 펼쳐온 케링재단(Kering Foundati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맞춘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이란?

젠더 기반 폭력은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모든 유형의 피해입니다. 이는 권력 불균형에서 기인하므로, 성적, 신체적, 언어적, 심리/정서적, 또는 사회경제적 폭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에 시작해 2027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 7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각 활동은 성격에 따라 ‘콘텐츠형’, ‘활동형’, ‘연대형’으로 나누었고, 지난 7개월 간 진행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콘텐츠형 젠더폭력을 일상의 언어로

#대학알리

너는 알아, 젠더폭력?

데이트 폭력과 교제 폭력, 무엇이 다를까요?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젠더폭력 개념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영상과 카드 뉴스로 학내 젠더폭력 인식을 전환하는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서대문공동체라디오

디지털 성폭력과 싸우는 여성들

딥페이크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유튜브 채널 [페미문다]는 딥페이크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재현 없는 방식’으로 전달하며, 2차 피해 없이 공감과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디지털성폭력과 인공지능(AI), 윤석열 탄핵 집회를 계기로 한 여성의 광장과 정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

with 젠디콘, 젠더폭력 STOP!

젠더폭력에 맞서는 공감 메시지를 MZ세대 언어로 여는 ‘젠디콘(Gender+Emoticon)’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실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이모티콘들이 선정돼 스티커로 제작됐고, 메신저 입점까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활동형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

교회 내 여성 노동자 젠더폭력 실태조사와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인권 사이, 조심스럽지만 용기 있는 말 걸기가 시작됐습니다.

상여자의 착지술

딥페이크 '외상 후 생존'의 기록

예술계 성폭력 생존자의 회복을 돕는 예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속 사라진 인물을 통해 "이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술가들이 기록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사진 속 인물을 지우고, 남겨진 빈 공간에 질문을 남김으로써 회복을 서사로 이어가고, 잊히지 않도록 남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여민회

[농촌 페미니즘 프로젝트] 일상적 젠더폭력에 필요한 전환의 기술 A to Z

농촌 여성의 일상적 젠더폭력을 마을 단위의 대화와 교육을 통해 조명하고, 지역 공동체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갔습니다. 시골에서 여성들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공을 키우고 네트워킹하기 위해 '일상대응력 향상 훈련'을 기획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일다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골에 살고픈 당신에게 필요한 자기방어력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연대형 여성들이 모인다, 평화를 빛낸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여성네트워크(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가 지난 5월 <안전한 삶을 위한 페미니즘의 응답과 실천: 전쟁, 안보, 기지>라는 제목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키나와, 괌, 필리핀, 하와이 등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국내외 여성 평화 활동가, 연구자, 기자 등 180여 명이 모여 하루 종일 발제와 토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외국 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군사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지 생생한 증언과 경험을 통해 '평화'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담론의 장이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마친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과거에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그녀는 여러 기관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거나 상담이 끝난 시간이었다며, 어렵게 114를 통해 한국여성재단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의 영문명은 Strengthening Voices of Gender Equality against GBV in South Korea로 젠더폭력에 맞서 성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더 넓게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제도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목소리들, 기존 프레임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폭력의 양상을 이야기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이 흐름이 소식지에서 만나는 여러분에게도 닿을 수 있길 바라며, 8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 지원사업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 지원사업2팀 장근영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현장 속으로

2025 이주여성 지원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다”

지난 4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여성재단 W나누리에서 '2025 이주여성 지원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지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30명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배우고 공감하며 실무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시작을 여는 따뜻한 인사

워크숍은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서로 기대며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워크숍의 핵심이길 바란다”며 활동가들이 각자의 레퍼런스가 되어 서로를 지탱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딱딱한 공식 인사 대신, 같은 길을 걸어 온 선배의 진심 어린 격려는 활동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첫날 점심 식사 후 진행된 아이스브레이킹 세션 ‘서로 배우고 연대의 공동체 만들기’는 처음 만난 활동가와 감정카드를 매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진 ‘임팩트를 재정의하다’에서는 마이오렌지 이명희 대표 강연을 통해, 활동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사회적 가치로 환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고 가는 질문 속에서 활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 역량 강화 세션이 두 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활용을 통한 문서·프리젠테이션 교육, 조직 내 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팀워크 실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던 걸 다 물어봤어요.”, “이런 건 진짜 배웠으면 좋았을 걸!”이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 돌봄과 공감의 시간

첫날 W가든에서 근사한 케이터링 저녁식사 후 선배 활동가와의 대화 및 타로카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선배 활동가들은 자신의 실패와 회복, 연대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고, 타로 세션은 활동가들에게 예상치 못한 울림을 주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 간의 일정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활동가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동료로 넘어 위로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 실천의 씨앗, 아이디어 워크숍

둘째 날, 오전부터 시작된 조별 아이디어 워크숍에서는 활동가들이 직접 프로젝트 기획을 실습 해보았습니다. 예산 편성까지 꼼꼼히 준비하는 열띤 토론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고,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해요”,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기획을 메모하며 활동가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실제 현장 적용 의지도 다졌습니다.

수료식에서 한국여성재단 노지는 사무총장은 “권한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 역량 강화는 그 과정에서 함께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의 노고를 이야기하며 각자의 걸음을 응원했습니다.



❑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

권영미(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혼자 숙소에 머물며 골목길을 걷기도 했어요.
오롯이 ‘나’로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오은정(새한누리)

선생님들 발표 하나하나 너무
인상 깊었고, 특히 같은 베트남 출신
선배님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정현규(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울고 싶다는 감정카드를 뽑았을 정도로 지쳤었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재희(함께하는세상)

네트워크도 하고, 역량도 쌓고,
힐링도 된다는 게 실제로 느껴졌어요.

김나현(이주민과함께)

이틀 동안 웃고 나누고 배우면서
마음이 풀렸어요.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 맺음말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역량 강화 교육을 넘어, 이주여성 지원 활동가들이 자신을 돌보고, 활동하는 동료들을 만나 서로의 동력이 되어주는 공동체와 연대를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글 - 지원사업2팀 박주선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현장 속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성·계급·인종·장애 등으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비영리단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과 일반 모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단체 중 여성환경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올해 '환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이라는 사업명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험을 개인의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돌봄 이슈로 전환, 다양한 갭년기 경험을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 확산, 환경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걷어내고 여성의 몸에 대한 젠더 관점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열정적인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현장 속으로2: 성평등사회조성사업



Q. 여성환경연대와 서정희 활동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의 관점에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9년 창립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현재와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평등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자연의 속도에 맞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위해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건강팀 서정희 활동가고요, 월경·환경·돌봄 등 여성의 몸, 여성건강과 관련한 의제를 생태적 감수성과 연결해 풀어내는 활동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생애주기 중 환경기를 전환점으로 마주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과 '나와 지구를 위한 월경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여성환경연대는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으로 '환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상반기 동안 진행된 주요 사업과 참여했던 분들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다, 다른 환경' 인터뷰와 환경 교육&환경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장애 여성, 비혼여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환경기 여성, 환경기 여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교차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인터뷰 참여를 통해서 환경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장애여성과의 인터뷰 중에서 상호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고독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24일에는 '환경, 나이듦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환경 교육과 환경 파티를 기획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 중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환경 교육과 환경 파티 참여자 소감

"다양한 나이의 여성이 함께 모인 것이 무척 의미 있었습니다. 환경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자리였어요."

"참여 전에는 4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해서 길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너무 알차고 소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전시를 준비해 주셔서 좋았고, 1회성으로 끝나기엔 아까운 전시였습니다."

"마침 환경을 맞이해서 무언가 하고 싶었는데, 환경 파티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Q. '환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 사업 담당자로서 고민이나 보람, 앞으로의 기대를 나눠주세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환경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 당사자들을 위한 교육만을 염두에 두었는데, 다양한 돌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대 사춘기 시기의 몸 교육안에 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께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의 필요성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환경기 여성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이유로 사회문화적 인식의 부재를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운 날이 많아지는 요즘, 환경기 여성들은 호르몬 감소로 인해 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환경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가시화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여성환경연대에게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단체들의 비빌 언덕이고 여성환경연대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여성의 몸', '생태', '돌봄'이라는 주제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단체 내부의 문제 의식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성평등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일상생활 속 실천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공동체적 해법을 만들어 가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개인의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돌봄 이슈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갭년기 경험을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의 확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자신의 몸과 관계 맺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여성의 몸에 대한 젠더 관점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인터뷰 - 나눔기획팀 성예현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현장 속으로

부룬디 소녀들,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갈래요



한국여성재단은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최정숙여자고 성인지 교육 지원사업'은 고사리손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565명의 학생에게 생애 첫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젠더 기반 폭력과 악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과 함께하는 부룬디 최정숙여자고 지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룬디, 성교육의 부재와 필요

부룬디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여성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아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잘못된 성 인식으로 여아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터부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성교육의 부재는 소녀들이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고, 결국 조혼과 10대 임신, 학업 단절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처음으로 '성'과 '권리'의 개념을 배우고, 존엄성과 권리 인식을 향상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과 함께하는 부룬디 성인지 교육

한국희망재단과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방글라데시 성안토니오학교 기초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부터 부룬디 최정숙여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성인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사리손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이어진 성인지 교육은, 최정숙여고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육 실시 이후 최정숙여고 재학생 중 조혼, 청소년 임신, 젠더기반 폭력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성인지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며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평등', '성평등 정의', '신체 변화와 특징(2차 성징)', '생리주기와 위생관리', '젠더기반폭력과 임신 예방', '가족 계획과 피임', '유방암 예방', '성과 사랑', '재사용 가능한 생리대 만들기' 등 통합적 교육을 통해, 여학생들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룬디 최정숙여고만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부룬디 지역 사회 전체의 남성 중심적 문화에 변화를 이끌며, 미래를 이끌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부룬디 최정숙여고 사업현장 이야기

첫 성인지 교육, 마지막 프로그램에 인근 고등학교의 남학생들과 함께 '임신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공동 책임과 역할', '학교 내 10대 임신 예방과 성 인식 개선', '부모님과 성에 대한 고민 나누기', '책임감 있는 이성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토론에서 최정숙여고 재학생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황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들과 함께 터부시되던 성 관련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사업의 의미와 보람

성인지 교육을 처음으로 받은 최정숙여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동안 집으로 돌아가 지역의 여아와 여성들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단순한 교육 참가자가 아닌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지역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작은 물결이 되어 퍼져 나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전체의 여아와 여성에 대한 문화와 태도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고사리손기금 기부자분들께 한마디

기부자님들 덕분에 현재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731명의 학생들이 기초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자신을 소중히 지키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룬디 최정숙여고 학생들은 이제 단지 배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나누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아와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부룬디 최정숙여고 성인지 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인터뷰-한국희망재단 정혜윤 팀장

한국여성재단은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부룬디 최정숙여고 성인지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지 교육과 더불어 생리대 제작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과 소통하며 현장의 필요와 변화를 함께 나누고, 부룬디 여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의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이 많은 분들의 참여로 더 확장되고 다양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나눔기획팀 박정아
자료협조: 한국희망재단 정혜윤 팀장

한국여성재단의 특별한 인연,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작은 참여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6개월간 한국여성재단 빌딩의
재개관을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그 후로 2024W액션나눔캠페인과
올해 2025W액션나눔캠페인까지 2년 연속
성평등 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재단 건물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
그리고 기부처로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강홍구 소장님과
진솔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강홍구 소장

Q.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와 소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강홍구 소장입니다.

생활건축은 기획부터 브랜딩,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시각으로 공간을 대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용자의 생활을 공간에 담고, 건축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Q. 2023년에 한국여성재단 빌딩을 리모델링해 공간을 멋지게 재탄생시켜 주셨는데요, 한국여성재단과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 재단과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여쭙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우연찮은 기회로 이전 리모델링했던 건축주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재단의 건물을 둘러보고,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좋을지 제안을 드렸죠. 건물이 더 오래 유지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고 제안을 드렸을 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회공익재단과 손발을 맞춰 보는 건 처음이 아닌데 재단과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인상은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소통이 부드럽게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의외하신 분들과 소통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재단 이사장님과 직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잘 이해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도 잘 말씀해 주셔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 빌딩의 공간을 재구성 하신데 고민되었던 부분이나, 특별히 고려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먼저는 전체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제안하고, 재단에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해한 다음 정해진 건물의 층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법규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하와 1층을 연결하는 부분 등에서 저희가 대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하 공간의 활용도가 많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었고, 그 과정에서 1층을 지하와 연결해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옥상 공간의 활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외부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셔서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전에 흙이 많이 쌓여 있고 풀이 무성했었는데 철거를 하고 새롭게 환경을 조성해 지금의 옥상 공간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메인 키워드로 제안했던 부분은 생애주기의 연장이에요. 이 건물이 단순한 건물로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보다는, 생애주기가 연장되어서 여성재단이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건물의 기능성 단열이라든가,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의 활용적 측면에서도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공을 해서 건물의 생애주기를 늘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Q.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25W액션나눔캠페인 기부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평등기금은 여성 인권, 차별, 폭력 문제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한국여성재단 빌딩을 리모델링할 때 1층에 있는 박영숙홀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성재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박영숙 초대 이사장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인권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가 돕는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성재단에서 지역에 있는 단체를 많이 지원한다고 들었고, 그러면 재단에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연이 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재단의 시작과 박영숙 초대 이사장님이 하신 인권운동, 환경운동도 알게 됐습니다.

Q.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평등 사회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서로 혐오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있는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관계가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운동과 활동을 통해 관계망이 넓어지고 다채로워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면 성평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가 다채롭게, 다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기부자로서 앞으로 한국여성재단에 기대하는 점을 알려주세요.

한국여성재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공익재단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작은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은 누군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재단이 여러 소수 약자들의 의견을 잘 듣는 역할을 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여성, 성평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계속 알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 성평등 기금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작은 참여가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부에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생애주기를 함께 고민하고, 공간의 지속 가능한 방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강홍구 소장님.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와 소장님의 걸음을 응원하며,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 나눔기획팀 박정아, 신을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비산치과 전민용 원장을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가장과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햇살이 뜨거운 여름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비산치과 전민용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한국여성재단 여성건강지원사업 중 치과진료분야 지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비산치과를 비롯해 166개 병원이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여성 가장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을 위해 충치 치료, 임플란트 시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전민용 원장님.

열정적이고 멋진 삶의 가치를 나눠주신 전민용 원장님의 인터뷰를
지면으로 나눕니다.



Q.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원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치과의사와 치과대학 학생들이 모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19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군사정부 시대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모인 치과의사들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를 창립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건치신문이 창립되었는데 제가 10년간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1995년에 도서출판 건치를 설립하고 1999년에는 구강보건정책연구회를 창립하였으며, 2014년에 한국여성재단 치과 진료사업인 '엄마에게 희망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료소외계층 지원, 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구강보건정책 연구 및 실천, 남북구강

보건의로 교류, 지부별 활동 등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읽는 것을 즐기하며 바둑을 좋아하는 치과의사입니다.

Q. 원장님과의 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 되셨는지요? 더불어 치과 진료로 만났던 분들과 기억나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에서 치과진료를 통한 기부 요청이 와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겼고, 지금까지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료로 오신 분들과는 치과 진료 상황상 이야기를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취약 여성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성 지원으로 함께 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나 보람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과 진료에 참여하신 분들 중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계시는데요. 여성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폭력방지법은 199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법 제정 후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력이나 범죄,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이 되고 있지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더 내실 있게 만들어서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가 폭력 없는 더 좋은 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되어야 하고 제도화로 가야 합니다. 원시 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남성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쓰는 경향이 강했다면, 여성들은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 일을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이 사회를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평화롭고 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고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경남 진주 등지에서 출발한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행진이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차벽에 저지되었을 때 2030 여성들이 남태령 현장으로 이동하여 경찰에 맞서며 구호를 외쳤고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빛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가 힘의 지배적인 문화보다는 공감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원장님의 평소 진료 철학을 나눠주세요.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환자든 똑같은 기준으로 예방 차원의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드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Q. 한국여성재단 활동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여성입니다. 여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재단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폭력이 없는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진정성으로 진료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소신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민용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민용 원장님과 더불어 여성건강지원사업의 치과 진료로 함께해 주시는 전국의 치과병원들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인터뷰-나눔기획팀 성예현, 신을진

재단활동소식 2025년 1월-6월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1월 22일, 한국여성재단 W나누리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주여성 활동가들의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채워진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5개 단체의 활동가들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동료애를 나눴습니다. 사업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커넥플 W기금 기부

2월 17일, 경력보유여성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기업 커넥플과 기부증서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커넥플은 경력보유여성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재도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프로그램의 수익금 일부를 재단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는 W기금에 기부하였습니다. 향후 재단과의 좋은 협력 또한 기대하며, 여성들의 성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장을 펼치고 있는 커넥플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미래여성 NGO 리더십 과정 18기 장학생 연구보고회 및 19기 장학증서 전달식

2월 19일,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제18기 연구보고회 및 19기 장학증서 전달식이 성공회 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사회와 대학, 그리고 기업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내는 국내 유일의 모델'로 평가받으며, 지난 19년간 지속적으로 여성 리더를 양성해 왔습니다. 여성운동의 성장과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향한 연구와 실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젠더 상상력과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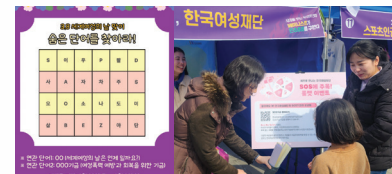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2차년 중간보고회

Brave Changes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3년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 지원사업, 여성단체 코어 지원사업, 콜라보 지원사업 등 세가지 분야로 이어지는 사업의 2차년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년 상반기 동안의 단체별 주요 성과와 활동 사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 참여자들이 운영 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노력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함께 나누는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 SOS기금 모금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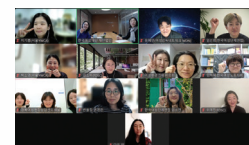
SOS기금은 여성과아이가 안전한하고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해 다양한 채널에서 소식을 전하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839명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예 함께 해주었으며 모금액은 9,901,000원이었습니다. SOS 기금을 통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 및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전국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SNS이벤트 & 제40회 한국여성대회 부스 참여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숨은 단어 찾기 SNS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벤트에 함께한 많은 분들이 재단의 활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제40회 한국여성대회에 부스로 함께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소개와 다채로운 시민참여의 장이 열렸습니다. 재단은 성폭력, 가족폭력 등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아이가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여성공익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SOS(Save Our Safety) 기금을 알리는 퀴즈 룰렛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3.8세계 여성의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연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오리엔테이션

3월 12일,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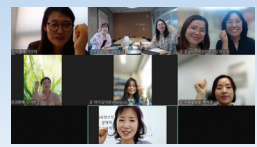
되었습니다.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자유 주제 분야 4개 단체, 폭력 예방 및 해결 분야 2개 단체, 올해 처음으로 '성평등한 돌봄' 분야가 신규 기획되어 2개 단체, 차세대 여성운동 1개 단체, 총 9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의 시작을 나누기 위해 9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고 앞으로의 사업 과정을 안내 하였습니다. 사업 담당자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사업을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도 되었습니다.



양육미혼모지원사업 With Mom Project '연대 치대 여동문화 밤'과 함께

4월 17일, 연세대학교 백양

누리 그랜드볼룸에서 '2025 여동문화 밤'이 열렸습니다. 연대치대 여동문화는 2017년부터 양육미혼모 지원을 위한 "With Mom Project"에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여 명의 동문이 마음을 모아 약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2025여동문의밤'에서는 'With Mom Project'의 의미를 동문들에게 알리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과 더불어 이경선 동문화 회장님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동문들의 따뜻한 나눔이 미혼모 가정을 위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5월 20일, 이주여성 리더들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시민,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 현안을 발굴하며 해결을 위해 힘써온 1년간의 활동을 나누는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성과 보고회가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진주, 나주, 양산 5개 단체의 이주여성 리더 72명과 지역 선주민, 이주민 2,105명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과정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이주 여성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VTPL 자선 프리마켓 수익금 기부

5월 23일, K-뷰티를 이끄는 'SISTER ANN(시스터앤)'을 운영하고 있는 VTPL이 자선 프리마켓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한국여성재단 W기금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을 눈여겨 보았으며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VTPL. 함께할 때 아름다움은 더 의미가 있다는 프리마켓의 슬로건처럼 내·외면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VTPL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미혼모 가정을 위한 토종 쌀 300Kg 기부

5월 27일, 가배울과 우보농장이 미혼모 가정을 위해 나눈 토종쌀 300Kg 기부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배울과 우보농장, 한국여성재단은 협업하여 텃밭에서 토종쌀 판매 펀딩을 기획하고 104%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펀딩을 통해 농민의 손으로 되살아난 토종쌀을 알리고 판매하며, 미혼모와 자녀들에게 건강한 토종쌀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토종쌀을 지키는 일, 여성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함께 더해진 특별한 펀딩이었습니다.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16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개강식

6월 4일,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16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개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활동가에게 여성주의 리더십 향상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을 목적으로 6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교육 방식과 이론과 현장 경험을 연결한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여성활동가들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여성 청년 역량 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4기 오프닝 파티

6월 28일, 하자센터에서 2025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4기 오프닝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청년 30명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응원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며 주체적인 삶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월경 빈곤없는 세상을 위해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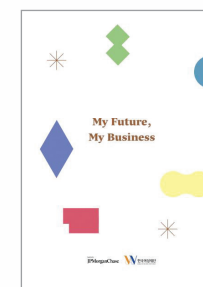
월경 빈곤없는 세상을 위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음편히 생리할 수 있도록 생리교육 키트 및 생리대 지원을 하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3일 까지 해피빈 기부를 통해 1,632명이 동참하였으며 목표 금액 9,001,100원(100%)을 달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파우치와 올바른 월경 지식이 담긴 월경교육용 엽서 그리고 유한킴벌리에서 기부한 생리대가 지원됩니다.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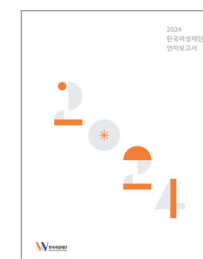
2024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성·계급·인종·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비영리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성평등사회조성, 돌봄사회 조성,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 차세대여성운동, 폭력 예방 및 해결, 긴급이슈 등 다양한 영역으로 15개의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활동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여성소상공인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24 여성소상공인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결과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소상공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사업 컨설팅, 솔루션 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참여한 여성 대표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주요 사업과 참여 소감, 변화된 결과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4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2024년은 한국여성재단이 2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기금조성과 나눔문화 확산,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인권보장, 여성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 대외협력 등의 영역별로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한 다양한 활동의 결과를 담았습니다.

기부자 명단 2025년 1-6월

개인

吳君珍 Aileen Park(박아일린) Alice Lee
APICHOTCHAWALKITHTHUNYAPAT LINTONJINA(이지나)

ㄱ

강덕순 강도성 강명신 강범희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자 강영아
강원화 강윤서 강윤정 강은결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정녕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지연 강태인 강현숙 강혜규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원 강혜정 강호간 게구리 고경진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선주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주 고재순 고지애 고지영
고지원 고채우 고한결 공옥분 공태숙 광옥희 광영선 광은숙 광지혜
곽채원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서영 구옥순 구자인 구춘자
구태우 구하늘 국경미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동휘 권민지 권보현
권새롬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예은 권은숙 권은희 권재희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섭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혜영 김가연
김가는 김갑순 김강중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광수 김광재
김광하 김관호 김귀옥 김금례 김나경 김나리 김나윤 김난이 김남희
김다원 김다혜 김다희 김대승 김대현A 김대현B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는 김도협 김도희 김동식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진 김명혜 김명화 김명희 김모란 김문희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A 김미애B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현 김미희 김민경 김민서 김민재 김민정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병관 김병두 김보라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연 김봉일
김분기 김산하 김상본 김상옥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서영 김서윤 김선미 김선영 김선호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세화 김소양 김술희 김수경 김수민A
김수민B 김수빈A 김수빈B 김수연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정 김수현A 김수현B
김수경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승혜 김신효정 김아라A 김아라B 김애숙 김애정 김양숙 김양지영
김양희 김엘리 김연덕 김연례 김연미 김연수 김연화 김연희 김연희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혜 김영화 김예지A 김예지B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운비 김운주 김원모 김유경 김유림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서 김윤수A
김윤주B 김윤지A 김윤지B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윤희C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원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주A 김은주B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인선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창림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춘 김정란A 김정란B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A 김정화B 김정희 김종덕 김종미
김종순 김주환 김주희 김준순 김지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A
김지원B 김지원C 김지는 김지향 김지현A 김지현B 김지혜 김 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옥 김진웅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욱
김태욱 김태환 김태훈 김하경A 김하경B 김하영 김하진 김한나 김한별
김한솔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지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미 김혜민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정 김효영 김희성 김효선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선
김희성 김희수 김희연 김희윤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진A 김희진B

ㄴ

나석주 나성주 나원경 나윤경 나인영 나지연 나진희 나혜림 남기용
남동원 남미현 남민주 남영주 남인순 노무현 노선숙 노수현 노옥련
노재희 노정아 노지은 노형수 노혜정 노혜진

ㄷ

다크비 도경희 도남래 도이현 도인정 동고은 두석호 두애린

ㄹ

라주연 류가희 류복연 류순형 류영선 류유선 류인혜 류춘희

ㄴ

마경희 마소현 마정윤 맹지열 맹필수 맹혜정 명진숙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란 문경숙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영선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ㄷ

박가현 박건혜 박경림 박경태 박경희 박귀천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영자
박미나 박미연 박미화 박민성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옥
박사용 박삼숙 박상진 박상현 박서진 박석자 박선의 박선희 박선택
박성희 박세경 박소연A 박소연B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수현
박승진 박애경 박애리 박연수 박 영 박영남 박영삼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예경 박옥필 박옥희 박옥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이레 박정곤 박정례 박정아 박정자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선 박주연 박주형 박준용 박지연 박지영 박지호 박진선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리 박초혜 박춘순 박태경 박태웅 박 현
박현미A 박현미B 박현순 박현자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연 박효숙 박희연 방윤혁 배기옥 배선애 배선희 배성신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순화 백승리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정혜 백지수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복금희 빈희진

ㄷ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옥경 서우찬 서은미A
서은미B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아 서정호 서조아 서지연 서지우
서지현 서지희A 서지희B 서현숙 서현우 서혜정 서희경 서희숙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용원 선은주 선진국 설영수 성경애 성세빈
성정현 성형주 소수동아리일동 손경화 손순연 손갑구 손은수 손지형
손진화 송가영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영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은영 송인범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지는 송혜영 송호선 순수정 신미순 신민자 신봉근 신봉남 신상철
신소영 신여명 신영미 신용선 신유정 신은섭A 신은섭B 신은숙 신을진
신의경 신인형 신재윤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창재 신호성 신희숙
심누리 심복길 심소현 심숙경 심영희 심우용 심정희 심지연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ㅇ

안건희 안경모 안기선 안미영 안미화 안상진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옥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준석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연 양옥경 양진호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호정
양후전 양희영 어블름내나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태호 엄혜경 엄미숙
여선숙 여진경 연미자 연미정 연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설애 오세연 오세훈 오솔잎 오수정
오영미 오영실 오윤결 오정순 오정용 오정원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오현석 옥천수 우남선 우상숙 우지혜 위단비 위소희 유가영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다영 유덕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윤지 유은영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숙 유지은 유혜미 유현정 유현주 유혜경 유혜윤 유환구
유희정 옥성희 윤경숙 윤계원 윤금이 윤말이 윤미리 윤미연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민 윤수인 윤순재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희 윤종원 윤종철 윤지우 윤진영
윤한성 윤현주 윤혜린 윤호준 윤종성 이강수 이건정 이경선 이경순
이경신 이경준 이경진 이경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광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규연 이그림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다인 이덕혜 이도영 이도하 이도형 이동석
이동선 이동신 이동하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루리 이루오 이문숙
이미경A 이미경B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희 이민지 이백혜경이병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아 이상엽 이상우 이상윤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선헌 이서연 이서영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주 이선혜 이설아 이상원 이상은 이성일 이상자 이상현 이성현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련 이수미 이수빈A 이수빈B 이수빈C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정C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현 이순수 이순은 이순준 이아람 이아현
이애란 이양주 이 연 이연옥 이연이 이연주 이연지 이연창 이영미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A 이영희B 이예솔 이예원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우진 이원선
이원식 이윤희 이유진 이윤희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이윤지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외너 이이섭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숙 이인자 이인화 이임조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우 이재윤 이재민 이정민A 이정민B 이정민C 이정숙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A 이정현B 이재건 이종순 이주연A 이주연B
이주형 이주홍 이주희 이지나 이지민 이지수A 이지수B 이지연A 이지연B
이지영A 이지영B 이지우 이지원/손시은 이지는 이지인 이지현 이진경
이진아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채원 이철수 이춘아 이춘희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영 이한돌 이현경 이현수 이현재
이혜린 이혜민 이혜원 이혜인A 이혜인B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복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효진 이홍재 이희원 이희정A 이희정B 임가연
임경숙 임경자 임경훈 임규태 임덕희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은주 임민숙 임지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호근

ㅈ

장근영 장나미 장동애 장명련 장소연 장소현 장수영 장수홍 장숙영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임 장영하 장예지 장원호
장운선A 장운선B 장운호 장인선 장재철 장정빈 장정훈 장정희 장종표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태진 장필화 장하윤 장한나 장혁재 장현진
장혜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부숙 전시현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진영 전진우 전해림 정강자 정 결 정경숙 정경아
정경옥 정경희 정구상 정구선 정근하 정기쁨 정길석 정길심 정다윤A
정다윤B 정다정 정도균 정동환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상철 정서연 정선경 정성녕 정성호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 숙 정순재 정승호 정승희 정아름 정아현
정영숙 정영애 정영지 정예진 정용숙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A 정유진B 정윤현 정은희 정은경 정은고 정은자 정은정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지아 정지영 정지원
정진희 정차선 정찬영 정창근 정창남 정채은 정청자 정해영 정현경
정현미 정현석 정혜경 정혜상 정희경 정희라 정효지 조경미 조경숙
조권중 조기한 조나연 조명숙 조 미 조민선 조배원 조병준 조보원
조선훤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연 조아라 조연숙 조영한
조예지 조옥라 조윤세 조은결 조은별 조을선 조인자 조임중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원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 형 조혜련
조혜륜 조호정 조홍식 주경은 주선모 주 영 주혜영 지상구 지숙자

ㅈ

차가현 차승현 차예송 차유빈 차인순 차재명 차진승 차혜민 채문희
채수경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최경수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남미 최동길 최라윤 최 리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상국A최세은
최서영 최선경 최선아 최선열 최성철 최세미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순복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옥 최영준 최예지 최옥숙
최원석 최원주 최유경 최유진 최은경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정원 최정유 최정윤 최정민 최진희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인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A 최희경B

ㅊ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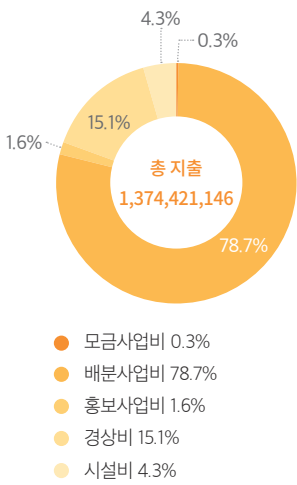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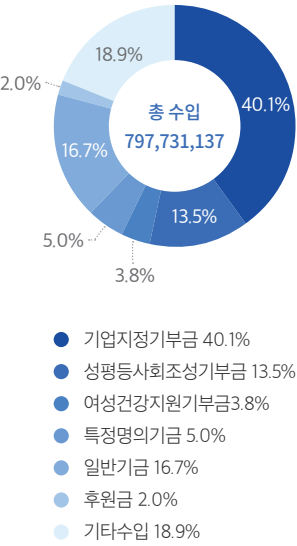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자운 한명희 한선희 한세빈 한송이
한수빈 한일순 한정빈 한정연 한정옥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현옥
한혜경 한혜린 한효정 함영진 허남재 허미영 허선이 허성경 허소연
허소정 허예린 허우석 허윤희 허은실 허철준 허혜영 허가현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영 홍미정 홍미희 홍상옥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세희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진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종우 홍주연 홍지나 홍지민 홍진선 홍현옥 홍현자 홍효정
홍희정 황경주 황금비 황금희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슬비 황유주 황 윤 황은정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정혜 황준협
황지민 황지원A 황지원B 황 진 황혜경 황훈영

롯데카드포인트기부자 문자기부자 해피빈기부자 무기명기부자 다수

기업/단체

ShekouIntlSchool_KoreanCultureClub 광장의배우와관객모금
교보자산신탁 꾸림 끌리메 나야와시 덕수엔지니어링
레벤심리상담교칭연구소 레터앤 미래포럼 바농 브리티피펠
샤넬재단 수학바로볼 신우카피 어도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신문사 여성주의독서모임줄곧 울산여성의전화 원테이커
(Wantaker Corp.) 유한컴벌리 이화여대 동문-캐나다 오타와지회
충북대여성주의동아리우레 커넥폴 테마노래연습장 프로스페라
피어나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호성투어

재정보고



수입

총 797,731,137 원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 기업지정기부금	기업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자원	320,000,000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일터(가게)나눔 · 고사리손캠페인 · 카드포인트 기부 ·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107,449,388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0,588,600
●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40,070,000
● 일반기금	프로스페라기금, 해피빈, 샤넬 외 다수	133,468,523
● 후원금	협찬금 등	15,829,714
●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환차익 등	150,324,912

지출

총 1,374,421,146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고유목적사업비	●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4,262,695		
	● 배분사업비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 여성운동생태계조성사업 젠더폭력대응활동지원사업	1,081,748,039		
		2. 여성인권보장 여성건강지원사업 봄빛장학금 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			
		3. 여성 empowerment 여성 NGO장학사업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조성사업 자립준비여성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			
		4. 다양성존중 및 돌봄사회 지원 양육미혼모지원사업 이주여성경제적자립지원사업 한부모이주여성역량강화지원사업 이주여성리더발굴지원사업 싱글맘나다움+지원사업			
		5. 프로스페라기금 사업			
		● 홍보사업비		소식지, 연간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2,229,126
		●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07,636,690
		●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8,544,596
		운영비			

기부안내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의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여성공익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W기금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재단 활동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주제별 사업기금

여성안전 및 폭력 예방, 여성건강지원, 해외여성청소년 자립 및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특별기념일 나눔

돌, 생일, 결혼, 추모 등 특별한 기념일에 나눔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기부

기업 사회공헌, 임직원 나눔, 현물 기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부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입니다.

온라인 기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접속, 기부방법 클릭 후 신청
나눔계좌(무통장입금)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창립 이래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라는 확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재단은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H. www.womenfund.or.kr